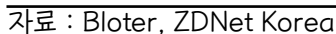


관련 뉴스 요약 “제2의 테슬라' 리비안, '시총 101조원'으로 상장...포드 넘었다”

- 미국 전기차 기업인 리비안이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데뷔함. 상장 직후 개장 가격으로 시총 910억 달러 기록하며 GM과 포드를 뛰어 넘음
- 리비안은 아마존과 전기트럭 10만대 공급 계약 후 제2의 테슬라로 떠오르며 주목받음. 빠르면 내년부터 아마존 배송 차량 1만 대 운영될 예정
- 리비안은 IPO로 120억 달러 자금을 확보하며 전기차 생산에 박차를 가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. 향후 기업 성장세 및 점유율 확대에 주목



Briefing

- 국토부 주도로 UAM 비행 시연 완료. 2025년까지 458억원 투자해 UAM 감시 정보 획득체계 개발 예정

- 공유 모빌리티 기업 라임이 우버 등으로부터 약 6천억원 투자 유치 성공, 내년 여름 상장 예정